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1.(목) 06:00,
(지면) 2023. 6. 1.(목) 석간

배포 2023. 5. 31.(수) 14:00

6월부터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 여객선에 실을 수 있게 된다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으로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냉매가스의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6월 1일(목)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함(22.10)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으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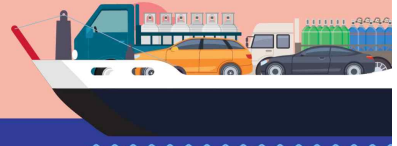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해양수산부는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0-5836)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용 고압가스류 여객선 휴대·반입절차 및 기준



여객선에 소량의 고압가스를 휴대·반입하기 위한 절차

1. 사전허가

고압가스를 휴대·반입하고자 하는
여객선(여객선사)에
사전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것



2. 휴대·반입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수리기사 등)가
휴대할 것



3. 안전조치

휴대·반입이 허용되는
질량, 용량 및 수량을 준수하고,
선장이 지시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선장의 허가 하에 여객선에 휴대·반입이 가능한 고압가스류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허용량



압축산소
(UN1072)
최대 1개(6.2L)



압축질소
(UN1066)
최대 1개(10.2L)



액화석유가스(LPG)
(UN1011, UN1077)
최대 1개(1.5kg)



인화성 냉매
(R32, R600A 등)
5kg 이하의 용기로 최대 2개(10kg)



비인화성·비독성 냉매
(R22, R134, R410 등)
20kg 이하의 용기로 최대 2개(40kg)



사람 1명 당 또는 차량 1대 당
휴대할 수 있는 가스는
총 6개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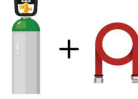


총 1kg 이하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가
충전된 소형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총 합계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R134, R600A 등)



용기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된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할 것



용접용 LPG와 압축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을 분리할 것



인화성 가스용기(LPG 등)와
압축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할 것

선장이 선박·인명의 안전을 위해 여객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위험물을 휴대·반입하려는
여객의 승선 전 허가에
필요한 조치



용기, 포장상태 및
고정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



위험물의 선박 내
보관장소, 위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



고압가스류
적재·보관장소에서
흡연·라이터 사용 금지